

“한때는 좋은 엄마이지 않았을까요?”

넷플릭스 ‘더 글로리’ 박지아

문동은 친모이자 첫 가해자

배역 위해 체중 7kg 감량

“유일하게 동은이를 사람 보는 앞에서 울게 만드는 사람도,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도 저예요.”

혀가 꼬여 몽개진 발음, 초점 풀린 두 눈에 구부정한 자세와 질질 끄는 듯한 발걸음까지.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문동은 엄마(박지아 분)의 움직임은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알코올중독자를 대면해본 이들은 “만났던 환자들이 겹쳐 보인다”며 현실적인 묘사에 혀를 내두른다.

‘더 글로리’에서 묵묵히 쌓아온 내공을 여실히 보여준 21년 차 배우 박지아(51)는 “파트2가 공개되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작품을 몰아봤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본사에서 만난 박지아는 “극 중 제가한 짓이 있다 보니 그게 화면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며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고 당시 감정을 떠올렸다.

‘더 글로리’에서 박지아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의 친모이자 첫 번째 가해자인 정미희를 연기했다.

고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가혹한 괴롭힘을 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엄마 정미희는 유혹을 즐기느라 바쁘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그만둔 딸의 자퇴 사유를 ‘부적응’으로 수정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두둑이 챙겨 받고, 그 돈으로 애인과 함께 떠나버린다.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에 딸을 버리고 떠난 정미희는 18년이 지난 후 딸 앞에 다시 나타난다. 가장 악랄하게 딸을 괴롭혔던 가해자 박



배우 박지아

/연합뉴스

연진(임지연)의 사주를 받고, 또 한 번 딸에게 찢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런 스토리에 대해 박지아조차 “결국 문동은의 최고 가해자는 엄마”라는 박연진의 말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박지아는 “‘남들 다 지우라던 거 애지중지 낳아서 업어 키웠다’는 대사처럼 정미희도 한때는 좋은 엄마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실제로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로서 그가 좋은 엄마였던 시절도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풀리지는 않잖아요. 정미희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벗어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가스레인을 얹고 있는 거죠.”

오디션을 보러 온 수많은 배우를 제치고 정미희 역으로 캐스팅된 이유는 “간절함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박지아는 추측했다. 그는 배역을 위해 체중을 7kg 줄였다고 한다.

그는 “파트1과 파트2 사이 18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 살을 빼보고 싶다고 말쑤드렸다”며 “실제 알코올중독자의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 없이 굶어가면서 살을 뺐다”고 말했다.

박지아는 2002년 장동건 주연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 영화 ‘기담’ (2007)에서 엄마 귀신으로 관객과 만났다.

이후 영화 ‘광해’ (2012), ‘곤지암’ (2018), 드라마 ‘신의 퀴즈’ (2014), ‘닥터스’ (2016) 등 수많은 연극 무대를 오가며 차근차근 작품 목록을 쌓아왔다.

/연합뉴스

“순우리말 팀명에 자부심 있죠”

신인 걸그룹 ‘첫사랑’

18세 동갑내기 7인조

“저희가 팬들의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어요.”

신인 걸그룹 첫사랑은 29일 연합뉴스 등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선배 가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20~30년 함께 하는 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룹명은 첫사랑이지만 마음만은 마지막 사랑으로 오래 남고 싶다는 이들은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멤버끼리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녀시대 선배들이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첫사랑은 지난해 7월 데뷔한 신예로, 멤버 7명이 전원 2005년생 18세 동갑내기다. 이들은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KBS 2TV ‘뮤직뱅크’서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수아는 “데뷔 100일도 되지 않아 1위를 해서 너무 놀랐다”며 “이틀 발판 삼아 더 열심히 해서 1위를 더 많이 하는 큰 그룹이 되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첫사랑은 이날 두 번째 미니앨범 ‘딜라이트’ (DELIGHT)로 가요계에 돌아왔다.

이들은 올해 목표로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에 나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걸그룹 첫사랑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제공

팀에서 유일한 외국(일본)인인 유나는 “올해 해외 진출을 해서 더 많은 ‘마음’ (첫사랑 팬덤 명)에게 우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면 첫사랑이라는 팀명이나 ‘마음’ 같은 팬덤 명은 요즘 우리 가요계서 찾아보기 어려운 순우리말이다.

이들도 “흔치 않은 이름에 자부심이 있다”고 했다.

“이번 앨범 콘셉트 가운데 하나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장기전이지 않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열심히 활동해서 끝에 가서는 우승하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금희)

/연합뉴스

넷플릭스 SF ‘택배기사’ 5월 12일 공개

동명 웹툰 원작...김우빈 출연

넷플릭스는 배우 김우빈과 송승헌이 주연 새 시리즈 ‘택배기사’를 오는 5월 12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택배기사’는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2071년, 비범한 싸움 실력을 갖춘 전설의 택배기사 ‘5-8’이 택배 기사를 꿈꾸는 난민 ‘사월’을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김우빈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전설의 택배기사 5-8 역을 맡았다. 목숨을 걸고 모두의 생존을 위한 배송을 하게 된다.

배우 송승헌은 악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혼란한 세상에서 산소를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5-8을 선망하는 난민 사월 역은 강유석이, 사월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자 사월을 식구처럼 돌보는 군 정보사 소령 설아 역에는 이솜이 나



넷플릭스 ‘택배기사’ /넷플릭스 제공

선다. 영화 ‘마스터’ (2016), ‘감시자들’ (2013), ‘조용한 세상’ (2006) 등을 만든 조의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빌보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상위권

TXT 미니 5집 8주 연속 진입

걸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상위 20위권 안에 들었다.

빌보드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열두번째 미니앨범 ‘레디 투 비’는 ‘빌보드 200’에서 전주 2위보다 9계단 하락한 11위에 올랐다.

‘레디 투 비’의 타이틀곡 ‘셋 미 프리’는 빌

보드 세부 차트인 ‘글로벌 200’에서 95위에 자리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미니5집 ‘이름의 장 : 템퍼레이션’은 ‘빌보드 200’ 63위에 오르며 8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K팝 보이그룹 가운데 8주 연속 ‘빌보드 200’에서 100위 내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BTS)을 제외하고 TXT가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이 음반은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

범 세일즈’ 차트에서 각각 6위에 올랐고,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2주 연속 2위 자리를 지켰다.

걸그룹 뉴진스의 겨울 싱글 ‘OMG’와 선공개 곡 ‘디토’는 ‘글로벌 200’에서 각각 23위와 42위에 올랐다.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프 보이’는 같은 차트 132위로 나타났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00위 오른 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첫 싱글 ‘큐피드’는 ‘글로벌 200’에서 전주보다 41계단 상승한 6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장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05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굿미야 굿아야®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비밀의 여자®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대년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뽀 좋아좋아 11:15 꾸러기 식사교실® 11:45 헬로키즈 공학교실®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하프와 친구들 7:45 엄마 깨우기 8:00 당당명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시공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건축탐구 집® 1:00 글로벌 아바타 찾아 삼만리 2:45 한국의 둘레길 3:05 나라를 위한 매일 수업 4:05 영아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크 5:00 EBS 뉴스 6: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7:00 순간 포착, 야생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극한직업 10:45 심아즈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세
12:00 KBS 뉴스12 1:00 별별다방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 뉴스 2:10 세상을 건다 2:30 밤과 후 초능력 3:00 상상꾸러기 꾸디2 3:15 메탈카드봇 3:45 프리몬 원정대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12:50 슈퍼맨이 돌아왔다® 1:50 스투디오K® 3:00 KBS 뉴스타임 3:30 TV 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알송달송 캐치 티니핑 5:15 크강과 게임해요 5: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꼭두의 계절® 1:55 2시 뉴스 외전 3:00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45 모범택시® 2:00 뉴스브리핑 4: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00 SBS 오뉴스 5:50 수학 없는 수학여행®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40 히든 어스 한반도® 8:30 굿미야 굿아야 9:00 KBS 뉴스9 10:00 다큐 인사이트 10:50 다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홍길동전 9:50 노매니 노아트 11:00 사정남 귀는 당귀 귀®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금복권720+ 7:10 대년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10:00 실화탐사대 10:00 방과후 설렘 시즌2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수학 없는 수학여행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30일 (음력 2월 9일)	
 子	48년생 인복이 많은 하루다. 60년생 정신이 맑아지는 운동 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72년생 움직이는 만큼 결과가 있 다. 84년생 이동과 함께 좋은 일 생긴다.	 辰	52년생 건강에 균형 잡아라. 64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 다. 76년생 말을 바꾸면 실없 는 사람이 된다. 88년생 인정 할 것은 인정하라.	 申	44년생 여러 사람과 시간을 가 져라. 56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68년생 서두르다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 다. 80년생 작은 투자가 기쁨을 안겨준다.
 丑	49년생 생각이 많아지니 내려 놓아라. 61년생 상대의 단점 을 굳이 지적하지 마라. 73년생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에 만족하라. 85년생 고생 끝에 낙이다.	 巳	41년생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의논 상대를 찾아라. 53년생 마 음을 비우는 것이 우선이다. 65년생 금전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77년생 작은 용통성이 대접받는다.	 酉	45년생 버릴 것은 버려야 새 로운 것이 들어온다. 57년생 세상에 비밀은 없다. 69년생 주변 사람들과 협력도 소통도 잘된다. 81년생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寅	50년생 의지가 강하니 무엇이 든 해낸다. 62년생 책임을 다 하고 만족한다. 74년생 대화 의 보따리로 쉽게 일이 풀린 다. 86년생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라.	 午	42년생 자손 운이 좋다. 54년생 웃음이 입가에서 떠나질 않 는다. 66년생 아랫사람의 위 로가 있겠다. 78년생 애정 관 계가 더욱 좋아진다.	 戌	46년생 마음이 약해지니 의욕 도 사라진다. 58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70년생 모임 을 이끌어 가는 감투를 쓴다. 82년생 이성을 조심하라.
 卯	51년생 갈팡질팡 생각이 번덕 스럽다. 63년생 주위의 부러 움을 산다. 75년생 항상 일하 기 전에 메모하는 습관을 하 라. 87년생 방해 없는 하루다.	 未	43년생 상대방과 마찰은 생기 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55년생 생 어차피 인생은 새옹지마 다. 67년생 가족과의 여행을 준비한다. 79년생 묵묵히 내 일만 하라.	 亥	47년생 건강이 제일이다. 59 년생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 71년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을 갚아낸다. 83년생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룬다.